

이명박, 한나라 대선후보 확정

여론조사서 우세…박근혜에 2,452표 차 신승

李 “정권 되찾겠다”…朴 “깨끗이 승복”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한나라당의 17대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됐다. 박 관용 당 선거관리위원장은 20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이명박 후보가 한나라당 제 17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것을 공식 선포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4면)

이 후보는 13만898명(유효투표수)의 선거인단과 여론조사 대상자 5천 49명의 득표수를 합산해 계산한 결과 총 8만1천842표를 얻어 7만8천632표를 얻은 박근혜 전 대표를 2천452표 차이로 제쳤다. 원희룡 의원은 2천 398표, 흥준표 의원은 1천503표를 각각 얻었다.

개표 접두 결과 이 후보는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박 전 대표와 치열한 경합 끝에 432표 뒤졌으나, 일반국민 상대 여론조사에서 8.5% 포인트(표로 환산 2천900여 표) 가량 앞서 승리했다.

이 후보는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된 직후 수락연설을 통해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에 고개 숙여 한없는 경의를 표하며 겸허한 마음으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소감과 함께 “당원 동지들과 함께 반드시 정권을 되찾아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한,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의 꿈은 이루어 진다. 그것이 바로 이명박의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다”며 “다 함께 그 영광을 노래할 때까지 함께 나가자”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저와 함께 경쟁했던 박근혜, 흥준표, 원희룡 세 후보와 그 지지자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특히, 박근혜 후보께서 중심적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동의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발의 차이로 이 후보에 선패한 박근혜 전 대표는 이날 전당대회에서 “경선 패배를 인정한다”며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고 당원의 본분으로 돌아가서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 후보에게 “정권 교체에 반드시 성공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한 데 이어 “그동안 저를 지지해 주셨던 국민 동지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그는 이어 “치열했던 경선은 이제 끝났다”며 “아무 조건 없이 저를 도와주셨던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당의 정권 창출을 위해서 힘을 합해 달라”고 호소했다.

/임동우기자 tuim@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결정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주먹을 불끈 쥐며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교장·교감급 인사 16면

전남 교원인사 명단 인터넷 광주일보(www.kwangju.co.kr)



대입 정원 50% 수시 2학기 뽑는다

18만9300명…내달 7일부터 접수

2008학년도 대입 수시 2학기 모집 정원은 총 정원의 50%에 해당하는 18만9천300명으로 전년 16만7천 433명보다 13%(2만1천867명) 증가, 정시 모집 인원을 처음으로 넘어서졌다.

■수시2학기 대입 전형 일정

원서접수 및 전형 2007. 9. 7~12. 11

합격자 발표 2007. 12. 16까지

등록기간 2007. 12. 17~18

광주·전남 17개 대학은 모두 1만6 천450명을 뽑는다. (관련기사 7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장무

서울대 총장)는 20일 2008학년도 185 개대 수시 2학기 모집요강을 대학입학 전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각 대학별 모집 요강 주요사항은 대교협 대학진학정보센터 입학정보 홈페이지(univ.kcue.or.kr)에 게재된다.
/황태종기자 hwangtae@

제18회 무료 시민 건강강좌

24일 오후 2시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김남호 교수 ‘만성 신질환과 투석 치료’

광주일보사와 전남대병원은 장에서 시민 여러분의 질문을 받는다. 오는 24일(금) ‘제18회 테마가 있는 시민건강강좌’를 개최합니다.

이번 주제는 ‘만성 신질환과 투석 치료’이며 강좌내용은 28일자 광주일보에 게재됩니다.

- 주 제 : 만성 신질환과 투석 치료
- 강 사 : 김남호 전남대병원 신장내과 교수



- 전남대 의학박사
- 전남대병원 신장내과 분과장
- 대한내과학회 고시위원
- 대한신장학회 학술·간행위원
- 대한내과학회 광주·전남지회 학술이사

- 일 시 : 8월24일(금) 오후 2시
- 장 소 : 광주시 동구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 문 의 : 전남대병원 홍보실(062)222-5092

光州日報社·전남대병원

광주공원·광주교도소 부지·상록시설지구

문화수도 거점으로 개발

광주시 종합계획안…문광부 수용여부 관심

광주시가 광주공원·광주교도소 부지·서구 상록시설지구 등을 문화도시 기반시설로 개발해줄 것과 문화산업 5대 핵심 콘텐츠 육성 등을 골자로 한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협의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5면)

문화전당과 문화산업을 비롯한 10개 분야의 광주시 협의안은 상당부분 문광부 안과 차이가 있어 향후 문광부의 수용 여부 및 수용 정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는 20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광부와 지난 3월부터 문화도시 종합계획 협정안을 놓고 협의를 해왔다”면서 “시의 협의안이 마련된 만큼 다음 달 최종적으로 종합계획안이 수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사업에 ▲광주공원·문화전당과 연계한 생태 및 문화공간으로 조성 ▲광주교도소·문화전당, 5·18 국립민주묘지 등과 연계한 민주인권문화공원으로 조성 ▲상록시설지구(옛 농촌진흥원 일대)-우수한 식생자원을 최대한 보존 리모델링, 생태문화 거점 육성 등 3개 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

시는 또 당초 읍으로 제안됐던 문화산업 육성분야를 첨단영상콘텐츠와 게임, 애니메이션, 공예·디자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또 5·18 관련 시설로 활용한다는 기본적인 방침 외에 별다른 활용 계획이 없는 옛 전남도청 본관과 민원실 등을 민주·인권·문화 상징공간인 가치 ‘아시아평화의 전당’으로 조성해줄 것도 요구했다.

시는 특히 4조8천억원인 기존 사업비를 7조1천억원으로 증액하고 이 중 1조8천억원에 달하는 민간자본을 정부가 유치해달라고 제안했다.

광주시 위길환 문화체육정책실장은 “이 같은 협의안은 단번에 반영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주요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 및 협의하고,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이나 5년마다 종합계획 수정 시 지역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